



2025.10.12(주일)

제19회 농촌선교주일

통합 돌봄으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추석 명절이 지난 첫 주일을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선교주일 후원 계좌

우리은행 142-242485-13-149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문의 :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02-399-4340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목 차

| | |
|------------------------------------|----|
| 주제해설_ 최태관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부교수, 조직신학) | 1 |
| 통합돌봄으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 | |
| 공동기도문_ 김용민 목사 (충북연회, 사랑의사도교회) | 15 |
| 땀 흘려 일하시는 하나님 | |
| 교독문_ 이성호 목사 (배재대학교 교목) | 16 |
| 설교문_ 김명준 목사 (남부연회, 받들교회) | 18 |
|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
| 통합돌봄 Q&A 1_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 21 |
| 통합돌봄으로 농촌을 살립시다: 사회적연대경제에 기반한 통합돌봄 | |
| 통합돌봄 Q&A 2 | 23 |
| 돌봄사역이란, 돌봄사역의 예. 농촌교회 돌봄사역 유형 | |
| 통합돌봄 사례 | |
| 1. 중부연회 논현지방회 논현교회 (담임 권영규 목사) | 25 |
| 2. 동부연회 원주서지방회 사제교회 (담임 양기주 목사) | 29 |
| 3. 동부연회 홍천동지방회 창촌교회 (담임 김범식 목사) | 30 |
| 4. 동부연회 홍천동지방회 홍천서부교회 (담임 김금동 목사) | 31 |
| 5. 동부연회 철원서지방회 월촌교회 (담임 김형래 목사) | 42 |
| 6. 동부연회 철원동지방회 철월만나교회 (담임 조남성 목사) | 44 |
| 7. 충북연회 단양남지방회 북단양교회 (담임 박남영 목사) | 48 |
| 8. 충북연회 제천동지방회 송계교회 (담임 이재권 목사) | 50 |
| 9. 충북연회 괴산지방회 벤엘기등교회 (담임 안민혁 목사) | 54 |

주제 해설

통합돌봄으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

최태관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부교수, 조직신학)

- 해설주제: 지방소멸 위기 앞에선 통합 돌봄 의미

- 주제성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눅 10:27)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지역이 점진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화두가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정책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도농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중, 통합 돌봄 시스템은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럼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¹⁾ 통합 돌봄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소득의 불평등과 저출산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국가의 정책이다. 이곳에는 돌봄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가의 노력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돌봄의 문제는 더는 한 가족이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자도생과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서 외면되어 온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는 돌봄 민주주의의 인

1) <https://ebook.kab1.kr/magazine/ebooks/201910/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39.pdf>

식 전환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적절하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²⁾ 실제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통합 돌봄의 긴급한 사안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 통합 돌봄에 관련된 법령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입안하고, 통합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중이라 한다. 통합 돌봄은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공정한 분배의 대상으로서 돌봄을 정의하고 그의 실천적 논의를 전제한다.

2003년 기준 세계 10위권에 속해있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³⁾ 헬조선이라는 용어처럼 이미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은 저출산의 문제와 초고령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통의 종합세트라고 할 정도로 농촌은 이미 오래전에 도래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 게다가 인구 집중화로 인해 과포화 상태에 도달한 수도권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공정분배의 상실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른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의 문제는 농촌의 현실에서 더 극단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농촌은 공정한 분배와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본부는 “통합 돌봄으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촌교회의 부흥을 촉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다. 이에 본 글은 신학적인 이론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농촌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몸말

1. 통합돌봄의 성서적 근거

사회적 통합 돌봄은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이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맡기셨던 청지기 사명은 중요한 신학적 실마리가 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창1:26-27)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창조 세계에서 청지기로서의 삶, 즉 생명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자연 세계나 혹은 그와 분리되는 문화의 공간에서 살아가

2) 임종한, “돌봄사회와 돌봄 민주주의& 통합돌봄 지원법등 간담회 1차,” 1-3.

3) 앞의 글.

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사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을 돌보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방주(창7)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구원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구원을 향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궁극적 가치인 구원의 문제를 지향하면서도 모든 인간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보자.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인은 분을 내기 시작하면서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던 동생 아벨의 생명을 가치 없이 빼앗아 땅에 버림으로써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 그는 돌봄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와 다르게 하나님께 항변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이까?” 돌봄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 방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땅에 거주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를 해칠 수는 없으나 돌볼 수 없는 고립된 자가 된 것이다.

성서가 말하는 돌봄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연 세계의 구원을 배제하지 않듯이, 자연을 배제하지 않는 통합적인 돌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토마스 베리는 이와 같이 서로를 증진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돌봄의 관계를 ‘생명주의’라고 부르고 이를 통해 돌봄에 자연 세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생명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한다.⁴⁾ 오늘날 돌봄의 의미는 한국교회가 점진적으로 자연과의 상호관계와 자연과 인간의 동시적 돌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은 본래 의미의 회복을 말할 수 있다. 그 통합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다.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거대한 지구공동체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고립된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이 아니라 보다 거대한 지구 공동체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취해야 한다.”⁵⁾ 배리의 표현에 따르자면, 생명공동체의 회복이다. 그 회복은 전인적이고 하나님과 자연과의 근본적인 상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이 죽음을 통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가진 존재이므로 늙어가고 병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병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파괴된 땅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력을 회복한 자연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연 세계의 회복 없이는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연과의 상호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성서는 근본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상호 돌봄의 과제를 강조했다. 그 돌봄은 항상 공동체적이며 상호적 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어떻게 그 돌봄의 과제를 말하고 있는가? 우선 돌봄은 다양한

4) 토마스 베리/맹영선 옮김, 『지구의 꿈』 (서울: 대화출판사, 2020), 16.

5) 앞의 책, 18.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있고 자연과 인간을 포괄하는 의미의 돌봄을 말하고 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6-28)

자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듯이, 인간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돌봄의 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사회적 약자는 나그네, 과부, 고아이다. 이사야에 따르면, 구약성서는 나그네를 정의하는 히브리어의 노크리와 게르를 구분한다. 특히 게르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 살던 외국인(nokri)들과 달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오늘날 한국, 특히 농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한다.⁶⁾ 다른 한편, “과부와 그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쉽게 빈곤과 착취의 희생이 되었다고 한다.”⁷⁾ 그러므로 계약법전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그 법전은 하나님에게 해마다 십일조를 드리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십일조를 언급했다. 이는 “구제를 위한 십일조로 매 삼 년 끝에 그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내어놓는 십일조이다(신14:28-29=신26:12-15).”⁸⁾ 이는 구약성서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 기초를 쌓았고 자연에서 나오는 곡물은 나눔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에서 얻은 곡물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었고 이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데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신약성서로 이어진다. 신약성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 병자, 죄인, 이방인, 여성, 어린아이에 대한 돌봄을 언급한다. 누가복음 4:18~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느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에 의해 부활하심으로써 세우신 구원의 기초이다. 일상생활에서 구원에 대한 경험 없이 예수 그리스도

6)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263.

7) 같은 논문, 285.

8) 같은 논문.

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틸리히가 주장하듯이, 일시적 관심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실재가 가시화되는 궁극적 관심으로 나아가는 인간 구원의 기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되는 돌봄의 선언이요 돌봄에 기초한 제자도(弟子徒)의 근거이다.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4-35)”

예수님이 사랑의 길을 제자의 도로 말씀하셨다. 기독교윤리학자인 맹용길은 예수의 길의 “섬기는 인간, 화해하는 인간, 창조하는 인간”의 길로 정의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인간의 돌봄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돌봄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로 이어졌으며 이는 새로운 돌봄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⁹⁾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길로서 제자도는 근본적으로 돌봄을 지향한다. 신약성서에는 다양한 돌봄의 예시가 있다. 환자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은 예수님 사역의 토대가 되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눅 6:9) 창조 후 하나님이 쉬셨다는 안식일을 보다 우선하는 예수님의 돌봄은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 되었다. 혈루병에 걸린 여성을 만났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눅 8:48) 나인성에 죽은 아들을 업고 나오는 과부를 만나신 예수님도 그를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청년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눅 7:13-14)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앓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뿐인가? 돌봄은 곧 치유요 구원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16-17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어쫓은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눅 18:16-17)

예수님의 돌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돌봄은 구분함이 없는 돌봄이다. 예수의 돌봄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여성과 남성, 성인과 어린이, 자국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함은 이미 차별과 배제를 전제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차별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서로 사랑함

9) 맹용길, 『기독교윤리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2-13.

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반에서 형성된 것이다. 서로 사랑함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바레트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은 세상의 구주이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위해 간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은 더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간의 상호 애는 어떤 다른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애를 본받은 것이며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 것과 같이 돌보는 것이다. 거기에는 차별이나 배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예수의 돌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봄이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의 돌봄이다. 그의 돌봄은 일시적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병을 치유하는 일과 같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일은 예수의 돌봄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활하심으로써 궁극적인 생명의 모습을 보이시는 일이었다.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가 궁극적인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는 베드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돌봄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의 돌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궁극적인 회복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없이는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외면된 농촌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통합돌봄의 토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주도적 과제로서 통합돌봄의 신학적 의미

통합돌봄은 돌봄의 문제를 국가 주도의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돌봄이 개인을 무력화하고 돌봄 대상자들의 욕구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 수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면, 통합 돌봄은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충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의 돌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¹¹⁾ 따라서, 통합 돌봄은 지역사회가 점진적으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혹은 노인 요양 중심의 돌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지역통합 돌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10) C. K. 바레트, 『요한복음』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276.

11) 정지원 · 김정석,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적 이해와 실천적 함의,” 『지역과 세계』 46. (202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¹²⁾ “이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재가 돌봄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¹³⁾ 그러나 통합 돌봄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청양군은 주거, 돌봄, 보육, 청소년, 가족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복지 정책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 군은 “고령자 주거복지와 동시에 주민이 모단 세대들을 돌보는 농촌형 복지 공동체를 지향한다. 찾아가는 의료원, 농촌왕진버스, 원격건강모니터링, 경로당 무상급식, 공동식사 꾸러미만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부모교육실과 같은 보육 정책을 입안하여 실천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통합 돌봄의 제도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 돌봄의 지닌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돌봄은 근본적으로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이다. 그 돌봄은 상호적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을 예로 말씀하신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피해서 간다. 그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나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일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던 자도 돌봄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 돌봄을 요청하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이웃이며 동시에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돌보았으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았다. 그는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이다.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한편으로,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사이의 관계는 돌봄을 받는 자가 일방적으로 돌보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상호의존적이라는 말은 돌보는 자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사회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구원의 일시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구원의 일시적 경험은 다른 사람의 위기에 개입하면서 그 위기를 이해

12)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3) 앞의 기사.

14) <https://www.ccm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89433>

하고 돌봄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동기로 이해한다. 돌봄은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은 자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돌봄과 돌봄을 받는 욕구 충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욕구에 반하는 돌봄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봄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성별이나 국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을 수 없다. 돌봄의 불평등이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조안 트론토에 따르면, “민주적 돌봄은 우리 모두가 돌봄의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민주적 시민으로 평등하다고 전제한다. 모두가 돌봄 수혜자로서 시민의 돌봄 필요, 그리고 다른 시민의 돌봄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를 도와야 하는 상호 의존성은 평등의 기초가 된다.”¹⁵⁾

사회적 가치 경영연구원의 임종한 이사장은 돌봄 민주주의 4가지 과제를 말한다. “돌봄의 책임의 무임승차에서 남성성의 권리 철회, 돌봄 책임의 불평등을 감당한 여성과 사회 경제적 약자 존중, 돌봄과 책임의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 해소,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돌봄의 시장화 축소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다.”¹⁶⁾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속해서 사회가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키고 돌봄 노동자를 차별하는 과정에서 돌봄은 상호성의 원칙을 상실하게 된다. 트론토는 남성의 돌봄을 보호형 무임승차 혹은 생산형 무임승차라고 정의한다. 한편으로, 보호형 무임승차는 국가가 치안권을 사용하여 시민을 보호하듯이, 남성은 한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¹⁷⁾ 이와 같이 남성은 공적 돌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여성의 돌봄을 차별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생산형 무임승차이다. “남성은 월급봉투를 줌으로써 돌보고, 여성은 가사 일을 유지하고 필수적인 재생산 노동을 함으로써 남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월급을 잘 관리함으로써 돌본다.”¹⁸⁾ 이 유형은 남성이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재화를 벌어들임으로써 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전통에서 이중 돌봄의 책임을 떠맡았던 여성들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지금껏 서구사회가 보여왔던 남성 중심의 전형적인 돌봄의 패턴을 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비판은 가정으로 제한되어 온 여성의 돌봄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돌봄의 책임이 얼마나 여성 차별적이며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도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사회가 통합 돌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돌봄의 책임은 상호적이며 특정한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5) 조안 C. 트론토/강희강·나상원 옮김, 『돌봄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24), 89.

16) 앞의 책, 151.

17) 앞의 책, 160-161.

18) 앞의 책, 171.

두 번째, 돌봄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돌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민은 서로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돌봄의 모델을 세웠다.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무리들을 살피시고 그를 돌보셨다.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그 길을 여셨다. 날이 저물어 가는 때에 배고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하고 물러서는 제자들을 돌봄의 공동체로 인도하신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눅 9:16) 시장 원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봄의 사역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전환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없이는 사실상 돌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뉴11:46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비판한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눅 11:46-47) 비난의 요지가 무엇인가? 공동체적 돌봄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율법 교사들의 불신앙이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공동체가 사라진 돌봄은 사실상 억압적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돌봄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돌보는 일이다. 돌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할 수가 없고, 항상 공동체의 참여가 우선된다. 돌봄이 민주적으로 분배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성을 보여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공동체가 만들어졌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난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생활을 했듯이 교회공동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돌봄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¹⁹⁾ 존 웨슬리는 산상설교4에서 말한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그것을 고립된 종교로 만들려는 일은 그리스도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회를 떠나서 즉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 세상과의 모든 교제를 단절할 경우 그분의 가르침에 비추어보건대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²⁰⁾ 이와 같은 웨슬리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돌봄 사역의 본질을 보여준다.

19) 김경수, 『성경적 돌봄』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2), 24.

20) 존 웨슬리. 아드 폰테스 웨슬리, 『그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221-222.

세 번째. 돌봄은 기후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중심으로 자연 세계와 그물망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는 급격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한 우리도 자연 세계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은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치유를 하셨다. 말씀으로의 치유는 곧 영혼과 육체가 궁극적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질병의 치유는 일시적이지만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궁극적인 돌봄의 길을 여셨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만찬을 통해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이어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견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눅 7:22-23) 자연 파괴 없는 온전한 회복이야말로 토마스 베리가 말하듯이, 진정한 생명공동체의 길이 아닐까?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세계와 인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나고 온전하고 건강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계 중심에 두시면서 세계와 대화할 수 있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고 자연과 결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²¹⁾ 자연과 결속은 곧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이 그동안 파괴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존 웨슬리도 『자연철학』을 기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가깝게는 육식을 피하는 채식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을 주장했고 인권과 경제정의, 여성,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선한 정치기로서의 삶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점들은 결코 창조 세계가 배제된 돌봄은 결코 온전한 돌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²²⁾

요즘 농촌은 통합 돌봄의 상징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자 천국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통합 돌봄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년 세대와 청년, 아이들 세대들이 자연 안에서 치유 돌봄과 보육 혜택과 청년세대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제도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농촌교회가 자연스럽게 지역의 돌봄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특히 농촌교회는 민주적 돌봄이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는 지역적 성

21) 크리스티안 펠트만, 『빙엔의 힐데가르트』 (왜관: 분도출판사 2018), 145.

22) 박종훈, “존 웨슬리의 ”새로운 창조 “: 생태신학의 가능성,” 『창조신앙과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40.

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은 인간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며 우리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연이 누릴 수 있는 돌봄의 권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통합돌봄의 모델로서 농촌교회

사회적 가치경영연구원에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돌봄 역할을 5가지로 제안한다. 긴급지원, 돌봄 서비스 자원봉사, 정서적 영적 돌봄, 교회 공간 활용, 지역기관들과의 협력이다.²³⁾ 국가가 제안하는 「지역통합돌봄 지원법」은 건강권에서 소외된 장애인이나 노년 세대를 위해서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가족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한한다면, 교회는 돌봄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의 3교회는 (약대 중앙교회, 약대감리교회, 새롬교회)가 함께 연대하기 시작한 약대동 커뮤니티 케어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약대동 마을의 돌봄, 환경, 복지등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돌봄마을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²⁴⁾ 게다가 지난 6월 23일에 열린 한국서번트리더십 훈련원(대표 유성준 목사)은 ‘서번트컨퍼런스’를 주최하여 통합 돌봄에 관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지역교회가 통합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길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²⁵⁾ 이와 같은 통합 돌봄으로의 인식 변화는 더는 고난의 현장이 주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의 중심 영역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교회는 일찍이 도시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농촌살리기 운동을 진행해왔고 꾸준히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강원도 홍천 동면교회 박순웅 목사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거래 형태로 도시교회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박순웅 목사는 “생협들이 교단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실핏줄 같은 (농촌)생산자들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²⁶⁾ 특히 그는 계속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선교적 대안으로서 농촌선교를 강조하고 있으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사회적 농업을 강조했다.²⁷⁾ 실제로 다수의 농촌교회가 경제적 열악함이나 선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통합 돌봄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통합 돌봄에 참여하는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농촌교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통합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회와의 연대, 그리고 통합 돌봄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한 국가 지원책이

23) 임종한, “돌봄사회와 돌봄 민주주의& 통합돌봄 지원법등 간담회 1차 강연자료,” 35.

24)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80>

25) [jrtimes.co.kr/m/view.php?idx=4525&mcode="](http://jrtimes.co.kr/m/view.php?idx=4525&mcode=)

26) <https://mch.nocutnews.co.kr/news/6291572>

27) <https://mch.nocutnews.co.kr/news/6291572>

절실하다. 다시 말하면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통합 돌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농촌교회는 통합 돌봄에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촌의 봉괴는 대한민국의 봉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의 통합 돌봄을 위한 민관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촌공동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²⁸⁾ 따라서 농촌교회가 농촌지역의 통합 돌봄의 주체가 되고,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감리교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촌교회들을 살려내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감리회의 농촌교회로써 지역통합 돌봄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교회를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면, 강화 콩세알의 일벗교회 서정훈목사와 천안 단비교회 정훈영목사 그리고 홍천동면교회의 숲속 마당 협동조합이 지역의 통합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일 것이다.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각지대의 반찬 서비스를 통한 인생 이야기와 상담 치료 서비스로 함께 한다. 또한 약사들과 연대해서 약의 오남용과 남은 약의 처리 문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눔을 통해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등에도 관심이 많다. 경로당에서의 이미용서비스는 단결 회합 소식 나눔의 좋은 공간 서비스이다. 이외에 농촌교회가 농촌의 어린이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고 아이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과 친교 하게 하고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함으로써 커서도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상담, 치유, 멍때리기 등등 실질적인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서로 돌보는 일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뿐 아니라 감리교회도 도시의 농촌과의 교회를 통한 결연과 연회에서의 소통 역할로 통합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농촌교회를 살리는 대안으로써 통합 돌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통합 돌봄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공동체의 인식과 그에 실천적 대응의 문제이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외면했던 본질적인 문제와 만나는 일이다. 우리 한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위기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가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내가 실내 온도 1도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온전히 들릴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

28)<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keeper21&logNo=223896498461&navType=by>

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42)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4-45) 이제는 그리스도의 돌봄이나 섬김까지도 권력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돌봄의 주체이고 당사자로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창조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이 좀 더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김경수. 『성경적 돌봄』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2.
- 맹용길. 『기독교윤리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바레트C. K.. 『요한복음』.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 박종훈. “존 웨슬리의 ”새로운 창조“: 생태신학의 가능성,” 『창조신앙과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베리, 토마스/맹영선 옮김. 『지구의 꿈』. 서울: 대화출판사, 2020.
- 펠트만, 크리스티안. 『빙엔의 힐데가르트』. 왜관: 분도출판사 2018.
- 트론토, 조안 C. /강희강·나상원 옮김. 『돌봄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24.
-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기독교사회윤리 18(2009).259-288.
- 임종한. “돌봄사회와 돌봄민주주의 & 통합돌봄 지원법 등-간담회,”pdf1-4회차.
- 정지원·김정석.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적 이해와 실천적 함의.” 「지역과 세계」 46.(202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33.

웹사이트

한진수. “2026년 성년후견제도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온라인자료]

<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1910/index.html> (2025.8.5.접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온라인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2025.8.5.접속)

조성우. “농촌복지의 새로운 기준, 청양에 세운다.”[온라인자료]

<https://www.ccma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89433> (2025.8.5.접속)

원혜영. “‘지역을 섬기는 서번트목회와 통합돌봄’주제로 2025년도 상반기 서번트목회

컨퍼런스개최,”[온라인자료] jrtimes.co.kr/m/view.php?idx=4525&mcode=

(2005.8.5.접속)

송주열. “‘교회가 농촌살릴수 있다’…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 40주년 맞아.”[온라인자

료] <https://mch.nocutnews.co.kr/news/6291572> (2025.8.5.접속)
마을의사.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샵 성황,” [온라인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keeper21&logNo=223896498461&navType=by> 마을의사. (2025.8.5.접속)

공동기도문

땀 흘려 일하시는 하나님

김용민 목사

(충북연회, 사랑의사도교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친히 생명의 밥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사는 이기와 욕심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자신만의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눔으로써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하나님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일구시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농부들이 스스로 농사일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가꾸고 돌보고 살리는 농부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임을 알게 하시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농촌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농촌과 도시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날을 기념하여 농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연대를 통하여 그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농촌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성장과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의 재해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농촌과 도시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회개와 감사와 나눔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이성호 목사
(배재대학교 교목)

인도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 45:18).

회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 하도다(시편 147:1).

인도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3).

회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시편 148:3).

인도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6).

회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한1서 1:3).

인도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출애굽기 3:7).

회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애굽기 3:10).

인도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로마서 8:22).

회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로마서 8:21).

인도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하박국 3:4).

회중: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전도서 7:11).

인도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창세기 27:28).

회중: 하나님은 나를 돋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불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54:4).

다함께: 하나님아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54:2).

설교문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90:1~12

김명준 목사

(남부연회 받들교회)

들어가는 말

오늘은 우리 온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터전인 농촌과 농촌교회를 품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농촌선교 주일입니다. 생명 살림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포개는 농촌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기운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농촌선교 주일의 주제는 “통합 돌봄으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 약 248만 3000가구였지만 2024년 농가 수는 97만 4,000가구로, 100만 가구 선이 무너졌습니다. 농가 인구도 1970년 1,442만 명에서 지난해 200만 4,000명으로 곧 200만 명이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동안 84.4%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촌 소멸의 위기가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5.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기준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9.2%)보다 약 세 배 높은 수치입니다.

농촌 소멸, 노년의 삶, 돌봄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농촌교회와 성도들이 온몸과 삶으로 겪어내고 해쳐 나가야 할 일들이며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몸말

위와 같은 현실을 끌어안고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삶의 문제를 헤쳐 나가는 주인공으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 수를 헤아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며시 속삭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은 모든 생명의 밑바탕이며 농부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평생의 삶을 바쳐 생명을 돌보고 가꾸어 왔습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는 강건했던 청년과 장년의 시절을 지나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노년의 길에 막 들어선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노년의 한복판에, 또 어떤 이는 노년의 끝자락에 서 있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죽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하는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뒤쪽으로 미루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날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시편의 시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갈 날 수를 헤아려 보면서 오늘 여기, 지금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생각을 품으면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생활의 보금자리 등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시고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2. 또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날수를 세어보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돈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잊고 지내던 소중한 관계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나아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새로워지고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몸과 평생 어루만져온 땅과, 우리를 보듬어 안은 하늘과 햇빛과 바람과 모든 생명의 춤과 노랫소리가 다정하고 들려오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충만히 느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대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농촌교회와 성도들은 생명의 영성을 회복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농촌교회와 성도들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보금자리이며 우리 삶의 터전인 우리 농촌, 논과 밭, 산과 들, 강과 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모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의 충만한 생명과 빛남을 보고 듣고 느끼며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의 터전에 깊이 뿌리내리고 생명을 돌보며 가꾸는 가운데 생명의 영성, 평화의 영성, 노동의 영성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돌보는 가운데 공동체의 영성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나이 들과 죽음을 생각하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농민과 농촌교회 성도들의 삶을 품고 고단했던 발걸음과 함께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나오는 말

농촌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농촌과 농업, 농민(마을)과 함께 가는, 함께 살리고, 함께 돌보며, 함께 생명의 춤을 추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통합돌봄 Q&A 1

통합돌봄으로 농촌을 살립시다

：사회적연대경제에 기반한 통합돌봄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1. 신앙과 사회연대경제의 만남

기독교 신앙 전통은 ‘사랑과 연대’, ‘서로 돌봄’, ‘공동선의 실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교회가 세상 안에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가치를 현대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경제적·사회적 모델입니다. 이윤이 아니라 서로 돌봄, 배려, 정의, 평등, 그리고 모두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협동과 상생의 원리에 따라 지역사회와 취약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돌봄과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UN 총회에서는 각 나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도록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질치로 채택했고, 올해는 UN이 정한 국제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 왜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통합돌봄인가

1) 공동체적 책임: 신앙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반 돌봄은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2) 포용적 사랑과 정의: 사회연대경제는 소외된 이웃, 병든 자, 약자와 연대를 실천합니다. 이는 신앙적 사랑과 자비, 정의의 정신을 구체적 정책과 실천으로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3) 민주적 참여와 섬김: 의료돌봄의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존중

받고, 함께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모습은 신앙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의 전통과 닮아 있습니다.

3.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의 신앙적 의미와 효과

- 1) 이웃사랑의 실천: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돌봄에서 벗어나기 쉬운 이들을 보듬는 것은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 2) 평등과 존엄성 존중: 경제력, 신분,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정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앙이 추구하는 인간 존엄 실현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 3) 공동체 성장과 희망: 참여와 연대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고 소망을 나누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4. 결론: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는 신앙적 통합돌봄

오늘날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통합돌봄은 신앙의 가치(사랑, 연대, 정의, 평등, 섬김 등)를 세상에서 살아내는 중요한 도전이자 실천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교회, 신앙인은 이제 돌봄과 의료 영역에서도 신앙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약자와 함께하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내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행되어 국내에서도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을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돌봄과 섬김을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역에서의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Q&A 2

1. 돌봄사역이란

교회와 사회구성원들이 인간의 취약성과 연결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상호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여 함께 돌보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돌봄 사역의 범위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지원 :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교회는 신속하게 지원을 조직하고 제공
- 돌봄 서비스 자원 봉사 : 가사 업무 지원, 방문 돌봄, 식사 제공, 산책 및 병원 동행 등의 자원봉사 활동
- 정서적, 영적 돌봄 : 교회는 신앙을 통해 돌봄대상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예배,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 대상자들에게 영적인 충전 기회 제공
- 교회 공간 활용 : 교회의 시설을 활용해 돌봄 대상자들을 위한 모임, 행사,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돌봄활동 제공 가능
- 지역의 기관들과의 협력 : 교회가 지역의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대상자에게 제공 가능

2. 돌봄사역의 예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어린이집, 마을학교 돌봄 및 학습지도,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 돋기, 지역주민 모임을 위한 교회 공간 제공, 다문화가정 지원 상담, 일자리 소개 및 한글 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및 행사 개최,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및 교양문화 강좌 개설, 지역주민을 위한 까페 운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마을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청소년 까페 등 청소년 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귀촌자를 위한 상담,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등

3. 농촌교회 돌봄사역 유형

| 구 분 | 활동 유형 | | | | |
|--------------------|-----------------|------------------------------|------------------------------|---------------------|----------|
| 생계 지원 | 도시락 나눔 | 반찬 나눔 | | | |
| 생활 지원 | 일반 차량 지원 | 환우 차량 지원 | 생활용품 수리 정수기 보일러 형광등 모터 예초기 등 | 집수리 봉사 이미용 봉사 목욕 봉사 | 돌봄 서비스 |
| 귀농귀촌지원 (농사현장지원) | 귀농 도우미 | 농자재 관리 대여 | 돌고르기 등 현장 작업 지원 | | |
| 마을공동체지원 | 사모중심의 여성 친화적 활동 | 지역 활동 정보 나눔 | 지자체 협조 사업 안내 및 행정지원 | 마을 방송국 | 회계 노무 법무 |
| 평생 교육 지원 | 노인 대학 노인 학교 | 방과 후 학교 | 생애 구술사 | 사람 박물관 책 박물관 | 지역아동 센터 |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시설 운영관리 | 마을 식당 마을 까페 마을 숙박시설 | | | |

통합돌봄 사례 1

중부연회 논현지방회 논현교회 (담임 권영규 목사)

활동유형 : 생계지원(무료급식, 우유급식, 김장나눔), 생활지원(생활용품 수리(형광등 교체), 연탄나눔), 마을공동체 지원(경로잔치, 거리청소, 출어예배, 녹색가게), 평생 교육 지원(노인대학, 작은도서관, 장학금 지급, 토요 놀이터, 토요 물놀이터)

1. 활동

1) 논현무료급식소

2008년 개소한 논현교회 부설 논현무료급식소는 남동구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3일(목-토), 일 80명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구청으로부터 인건비(조리사 1인), 무료급식 식대, 장비보강비를, 지역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일자리로 6명의 어르신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외 교인들이 전처리, 설거지, 배식, 식당청소 등을 자원봉사로 맡고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하여 봉사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2)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우유급식

지역 2개 보금자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및 매일유업 대리점과 MOU를 맺어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우유급식을 시행 중입니다. 지역 관리사무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고 우유대리점에서 주 2회 우유를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명 가량의 어르신들이 우유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3) 사랑의 김장나눔

매 가을마다 지방 비전교회와 아동센터, 요양원,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4) 스마트LED 전등 교체 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전등을 점·소등하기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 전등을 스마트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동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남동구청과 MOU를 통해 남동구 관내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2025년도 여름에는 전남서지방 해남·완도지역 4개 교회(해남새롬교회, 하늘단비교회, 해송교회, 은혜교회)와 협력하여 마을 어르신 200여 가정의 전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했습니다.

5) 사랑의 연탄나눔

매년 연탄 2000-4000장 가량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여전히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마을(만수동, 구월동, 학익동)을 방문하여 연탄배달 봉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6) 경로잔치

2025년 여름 중고등부 학생과 스탭 60여명이 7박 8일간 해남과 완도지역을 방문하여 6개 교회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K-pop 댄스와 스킷드라마 등 문화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활동과 장수사진 촬영, 혈당과 혈압검사 등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을 동반했습니다.

7) 거리청소

매년 2회 논현동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플로깅을 통해 소래지역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8) 출어예배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소래포구 어민들을 초청하여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한 풍어제 대신 출어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 녹색가게

집에서 쓰지 않는 옷가지나 전자제품 등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더불어 수익금은 각종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0) 논현노인대학

남동구 관내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신체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는 파크골프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1) 작은도서관

교회 공간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아동과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논현교회 장학회

매년 고등-대학생 10~2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인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장학생에 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13) 토요 놀이터

매년 2회, 회당 3-4주 가량 토요일 오후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바운스를 대여하고 각종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지역아동 약 2-300명 가량이 방문하는 논현동의 명물행사가 됐습니다.

14) 토요 물놀이터

매년 여름마다 초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 3-4개를 대여하여 물놀이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지역사회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일은 교회학교를 대상으로 개설해왔으며, 핫도그와 컵라면 등 다양한 간식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리청소



논현노인대학



논현무료급식소



사랑의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나눔



출어예배



토요물놀이터



해남지역 경로잔치

녹색가게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개점시간 : 화~금 오후2:00~4:00 / 주일 오전10:00~오후1:30
 · 장 소 : 주차장에 위치

판매물품

생협 (쌀라면, 과자, 세탁비누 등)
 미역, 다시마, 참기름, 들기름, 뽕은 깨, 까나리 액젓, 김자반, 떼비누, 텁블러, 가마솥(24cm, 22cm), 성경책, 중고의류, 신발, 가방, 모자, 기타 생활품 등

사과나무 분양 신청
 · 사과나무 1그루 : 사과6상자(상자 5kg)와 사과즙1상자
 흄로 1박스(9월 초순~9월 하순)
 부사 4박스(10월 하순~1월 중순), 사과즙 1박스(5번째 사과와 같이 보냄)
 · 분양 가격 : 115,000원 / 택배세(13,000원, 우체국택배 5회비용 포함)
 · 분양기간 및 분양대금 : 8월 30일까지
 · 생산자 : 정하중, 일산농장 : 충북 음성군 음성읍 가설길 170[음산리 산5-43번지]
 · 사과수확시기 : 8월말부터 11월초

콩세알 두부꾸러미 신청(우리콩)
 · 15,000원 (두부1, 순두부1, 콩비지1, 둥글이 순두부1)
 · 15,500원 (찌개용두부2, 부침용두부2, 순두부1)
 * 매월 1회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수익금은 환경선교, 해외선교에 쓰입니다.

온, 신발, 가방 등 기증받습니다. (단 이불, 그릇, 바퀴달린 신발, 비취가방은 제외)

문의 – 녹색가게 운영위원회 팀장(김준희 권사 010-5347-4993) / 총무(김진화 권사 010-5381-548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논현교회
사회봉사
프로그램

노인대학



노인대학은 65세 이상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2학기(봄, 가을)에 걸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특별한 강사를 모신 교양강좌와 중심 그리고 7개반으로 나뉘어져 활동하는 분반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참여하여 즐겁게 공부하며, 의미있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논현 어린이집



1974년 6월 19일에 설립되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 아들의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7명의 선생님이 4세-7세 사이의 4개반(반씩

별님반, 웃는 해님반, 밝은 달님반, 푸른 하늘반) 68명의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기학교



18~30개월의 유아들이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인지능력을 키우고, 사회성을 배워나가고 있으며, 엄마와 함께 배우고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소중한 체험을 아기학교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06 토오늘아이터



지역 어린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복음도 전하기 위해 기획한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본 교회 어린이들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단체로 진행 가능한 실외 놀이와 만들기 활동 등 다채로운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 돋기



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장애우 가정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반찬지원, 청소, 생계비 지원을 감당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가 주위의 복지시설과 독거 노인, 장애우, 소년소녀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는 전교인이 선교회별로 각주로 복지시설노인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7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공간



도서실
 주민들에게 열린 도서실은 5,000여권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출하여 읽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노인무료급식



2008년 3월 개소한 논현 무료급식소는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 금, 토요일에 중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오름 까페

논현교회 1층에 마련된 해오름 까페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나 오셔서 카페 음악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입니다.

통합돌봄 사례 2

동부연회 원주서지방회 사제교회 (담임 양기주 목사)

활동유형 :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1. 동기

평소 마을(노령화로 인한 우울과 고립감의 심화)과 교회의 상호 교류를 마음먹고 있던 중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사회적 처방팀과 연계하여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어려움

지역특성상 참여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대상자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참여의 등락 폭이 큽니다.

3. 비전

75년의 교회 역사 동안 교회(공간)을 늘 개방하여 온 상황에 교회 문턱을 더욱 낮추고 마을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5 연세사회적처방 훈장학교

교육 대상자 모집

2025년 4월 14일 ~ 6월 2일

사회적 처방이란?
영국의 NHS의 전국민 건강지원 정책으로
약물처방이 아닌 문화와 교육을 처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진국형
정서지원서비스입니다.

대상
60대 청진인생을 희망하는 신중년

일시
2025년 4월 14일 ~ 6월 2일 (8주차)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주 1회)

목적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잘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 나눔과 불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장소
사제감리교회

뮤직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내용

- RFL - 자기 스토리 및 인자 강화 영역
- GIM - 리듬 청조 및 삶 속 친화력 강화 영역
- MIC - 운동력 및 통합 강화 영역

주관 : 연세대 글로벌헬스센터 사회적 처방 사업단

통합돌봄 사례 3

동부연회 홍천동지방회 창촌교회 (담임 김범식 목사)

활동유형 : 생활지원 (홍천군 내면 주민들중 출산가정에 100만원씩 지원)

1. 동기

출산 기피로 인구감소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소망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어려움

교인들의 이해와 관심 덕분에 진행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3. 비전

교회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면행정복지센터와 창촌교회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창촌교회 자체 부담으로 희망자에 한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후원금을 지원해 왔다.



홍천군 내면사무소(면장 배태수)는 2월 9일 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촌교회(담임 목사 김범식)와 출산축하 후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관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배태수 내면장과 김범식 창촌교회 담임

홍천내면·창촌교회, 손잡고 지역사회 희망과 기쁨 나눠
2025년 1호, 2호 출산 축하 후원금 전달

통합돌봄 사례 4

동부연회 홍천동지방회 홍천서부교회 (담임 김금동 목사)

활용유형 : 통합돌봄 (노인 돌봄, 여성 돌봄, 문화활동 제공)

1. 동기 및 활동

8년 전 홍천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교회 옆에 살던 한 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자주 오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혼자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글을 전혀 알지 못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었는데, 학부모 참관 수업에 어머니가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 아내에게 대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부탁이 계기가 되어, 그 가정은 교회와 연결 되었고, 이후 저희 부부와 성도들이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본 그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공공근로로 얻는 작은 수입으로 가정을 유지해야 했고, 아이의 학습을 돌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 안은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집을 청소하고, 아이의 공부를 도왔으며, 교회 공간을 공부방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 그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성도들은 큰 감사와 안도감을 느꼈고, 동시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 깊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신학적 성찰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와 말씀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함께 돌보고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며, 지체가 서로를 돌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소유를 나누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어촌 교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약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 요한 것은 ‘돌봄의 목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천읍 희망리가 위치한 이 지역은 외곽에 있어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의료·복

지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 일상에서 작은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병원 진료를 받는 일조차 교통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조손 가정, 독거노인,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곁에서 바라볼 때, 단순한 영적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돌봄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합돌봄 목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합돌봄 목회란 단순히 교회의 구제 사역이나 일시적 도움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신앙·돌봄·생활을 아우르는 사역입니다. 이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방식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새롭게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교회가 작고 연약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에 더 깊이 삶을 나누고, 더 따뜻하게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가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마을을 품는 계기가 되었고, 성도들에게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곳”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조손 가정을 돌보고, 어르신들의 정서적·영적 필요를 살피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더딘 걸음이지만, 이것이 바로 농어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제가 통합돌봄 목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 보여주신 살아 있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의 사역,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붙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통해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 흩어져 삶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 어려움

첫째, 통합돌봄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사역의 범위가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그에 맞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의 학습 지원부터 시작해 정서적인 안정, 청년들의 진로 고민, 중년 세대의 가정적 문제, 노년의 외로움과 질병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품어야 할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로, 목회자가 전 생애 발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 청소년의 정체성 문제, 노인의 심리와 질병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지만, 농어촌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배우고 있지만,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사역의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인내하며 지켜봐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때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정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아이가 끝내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어르신이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내가 애써온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넷째, 돌봄의 과정에서 생기는 관계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처음에는 도움을 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존적으로 변하거나 교회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세대가 얹혀 있는 가정의 경우, 누군가를 도우면 다른 누군가가 불편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남겨진 딸이 할머니와 함께 조손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 돌보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잡한 가족 관계와 정서적 갈등이 얹히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정서적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다섯째, 사역자의 소진(burn-out)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합돌봄 사역은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사역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려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섯째, 농어촌교회의 특수한 관계도 크게 작용합니다. 도시 교회에 비해 재정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인력도 많지 않습니다. 사역의 필요는 분명히 보이는데, 손발이 부족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때 큰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원이 없으니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일까?” 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어느 날 문득 변화된 웃음을 되찾은 어르신

의 얼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가정의 손을 잡을 때, “아,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매번 배우게 됩니다.

결국 통합돌봄 사역의 어려움은 곧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인내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무거우며,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에, 다시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3. 비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통합돌봄 사역의 방향은 단순히 어려운 정도를 돋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통합돌봄은 어느 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긴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청년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 중장년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과정, 노년이 외로움과 질병을 겪는 과정 모두에 교회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앞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관계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돌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따뜻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관계 맺기’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려 합니다. 아이들과는 단순히 학습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을 격려하는 멘토가 되고자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정기적인 방문과 대화를 통해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드리려 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곧 가족이자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돌봄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교회 안팎의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농어촌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 내부에서는 성도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사역에 연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는 멘토로 세우고,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성도는 방문 봉사자로 세워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내 학교, 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와도 협력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과 연대하여 채우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역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돌봄사역은 요람에서 죽음까지 전생애를 아우르는 사역이고, 이 사역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 목회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그저 단기적인 사역 사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례들을 통합하고 체계화를 한 후에 어느 곳에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체계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넷째, 사역의 과정을 기록하고 나누겠습니다. 돌봄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을 지속하다 보면 지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역의 작은 변화와 은혜를 기록하고,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나누려 합니다. 한 가정의 변화 이야기, 아이의 성장, 어르신의 미소와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모여 큰 격려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교회와 지역이 함께 사역의 의미를 공감하고, 더 많은 참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적·재정적 한계는 있고, 대상자들의 상황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모여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방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기”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며, 통합돌봄 사역을 이끌어갈 핵심 방향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앞으로도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사역소개 (2018-2023)

♥ 지역사회의 문화센터가 된 교회

사역 초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청장년 세대와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교회를 그들에게 오픈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첼로연주 공연장에서는 7세 이하의 유아들은 들어가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도 연주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강단과 자모실을 활용하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역소개 (2020-2023)

♥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저희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여 돌봄의 사역을 하는 형식에서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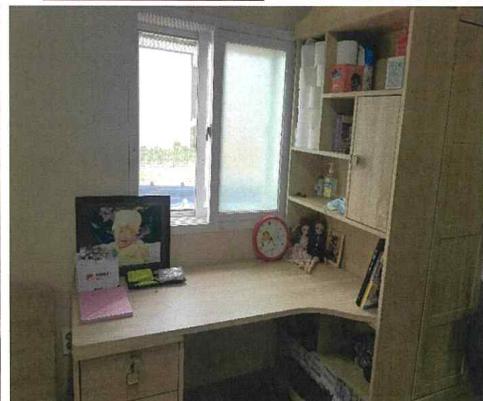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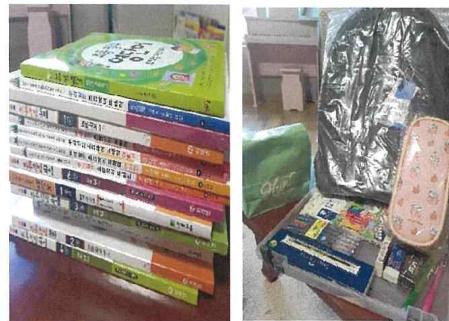
우선 그렇게 변화가 된 이유 중 하나는 2020년부터 2022년은 코로나 시기로 사람 간의 접촉, 대규모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기보다 잠시 쉬면서 각자의 가정의 필요에 맞는 돌봄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 돌봄 사역의 계기가 된 알코올 중독자 아빠와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엄마와 살고 있는 여학생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각자의 삶을 살피기 시작한 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정신지체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돋기 위해 집안 청소와 아이의 학용품, 문제집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며 같이 치워주고 종종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먹을 것이 하나 없고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는 모두 버리고 교회에서 사 준 새 냉장고에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넣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역소개 (2024-2025)

2) 어르신 돌봄 사역으로…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지역인 것을 활용하여 각자의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건강의 문제로 교회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그림책을 활용하거나 미술활동, 이미용, 말벗 되어드리거나 건강으로 인해 어려울 때 기도해드리는 다양한 돌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그림책을 읽어드리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림책 읽기 + 미술소근육활동을 제공합니다.

충전서부교회



사모 중심 여성 친화적 활동 (2019-2025)

♥ 요계벳 학교 (자녀 양육 중인 엄마들을 위한 사역)

이 곳, 홍천에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문화적 소외지역에 사는 홍천의 여성들은 부모교육, 아내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까운 곳에 부모교육, 양육코칭, 아내교육을 하는 곳이 없어서 자녀들을 방치하고, 올바르지 못한 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상담과 아울러 아내,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요계벳학교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었고 나일강의 강물이 넘실대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보호하고 그 물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사모 중심 여성 친화적 활동 (2019-2025)



부모들을 위한 풍성한 삶의 기초

엄마, 아빠 먼저

일 시 : 2025. 5. 22 (목) – 2025. 6. 19 (목) (5주간) 오전 10:00-11:00 * 매주 목요일 모임

대 상 : 자녀 양육 예정인 예비 부모

자녀 양육 중인 부모, 조부모

성경적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 등



신청 품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3길 27 1층 카페 <새움>



요게벳학교 3기 종강식



통합돌봄 사례 5

동부연회 철원서지방회 월촌교회 (담임 김형래 목사)

활용유형 : 농촌 돌봄서비스 공동체 (다문화가족기능강화, 제철반찬, 노인·장애인 일상지원, 사회적 농업 등)

1. 동기

월촌교회는 1975년 8월 27일에 철원평야 한가운데 세워진 전형적인 농촌교회입니다. 현재 담임인 김형래 목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목회를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희망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을, 2013년부터는 글로벌패밀리센터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 농업을 시작한 후 이 사업이 확대되어 농촌돌봄서비스 사업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활동

농촌 돌봄서비스공동체는 사회적 농업 분야 중 직접적인 농업활동을 통한 기여보다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교육, 고용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주민이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특별히 농촌 돌봄서비스공동체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 및 제도권 밖의 소외된 노인·장애인들에게 그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제철 반찬 나눔, 이미용 지원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며, '살맛나는 농촌 공동체', "다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촌교회 산하 사회적협동조합 글로벌패밀리센터는 농촌돌봄서비스 사업을 '농촌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정착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비전

현재는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농촌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인들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지역주민, 주민조직체들과 함께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지역에 '농촌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켜, 노인들이 집에서 최대한 외롭지 않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생활봄공동체 활동 사진]



통합돌봄 사례 6

동부연회 철원동지방회 철원만나교회 (담임 조남성 목사)

활동유형 : 평생교육지원 (철원 DMZ 초등돌봄교실)

1. 동기 및 활동

철원만나교회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를 목표로 삼고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더욱 부흥시킬 방법을 고심하던 중 교회 아동들과 친구들이 교회로 놀러 와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반겨주었더니 아이들이 주중뿐 아니라 주일에도 교회에 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속 가능하게 할 방법으로 주중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2021년 강원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공고가 나와 신청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철원DMZ초등돌봄교실(Dream Mission Zone)은 철원에서 처음으로 일반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열려있던 아동센터에서 나아가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또는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긴급 돌봄을 통해서 언제든지 보호받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 돌봄교실이 유일하게 모범 사례로 뽑히게 되었지만, 나머지 단체들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 강원도에서는 아쉽게도 시범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이 돌봄 사업이 끝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철원군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유지 존속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결국 철원군에서 보조를 받아 진행하는 유일한 민간 단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2. 어려움

처음 이 돌봄교실을 시작했을 때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고 긴급 돌봄을 원하는 어린이들의 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초창기에는 모든 수업과 아이들의 돌봄이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사는 물론 사무 전담교사가 필요했지만, 철원군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1-2월 보조금 없이 교회 부담으로, 자원봉사로 돌봄교실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3. 비전

철원만나교회 철원DMZ초등돌봄교실은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보호받는 돌봄을 받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에 다양한 수업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와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과학, 문화, 문학, 예술, 체육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한 공적인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지적인 교육을 넘어서 영적인 교육까지 책임지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을 넘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쉬고 또 일과를 수행할 수 있는 공교육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 철원DMZ초등돌봄교실(Dream Mission Zone)

1. 설립목적

- 초등 아동을 위한 주중 긴급 돌봄 및 주말 돌봄(혼합형 돌봄/ 주 5회~6회)
- 맞벌이로 인한 방과 후 아동들의 돌봄 문제를 개선하고, 가정 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건강한 양육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함
- 교회의 유휴 시간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유휴 시설의 사회 환원에 이바지 (월 ~ 토요일)

2. 연혁 및 상훈 사항

- 2025년 4월 강원도 교육청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선정
1월 강원도 철원군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 선정
- 2024년 4월 강원도 교육청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선정
3월 철원군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 선정
- 2023년 3월 철원군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 선정
- 2022년 9월 철원군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 신설 및 선정
- 2021년 6월 강원도 [강원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시범사업] 선정

3. 주요사업

- 1) 젊은 가정이 떠나고 있는 철원 지역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학교 방과 후 귀가 전까지 긴급 돌봄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악기, 전래놀이, 스포츠, 토탈클레이, 영화, 독서,

가베, 북아트 등)

- 2) 자영업이 많은 철원에 꼭 필요한 주말 돌봄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일과는 또 다른 돌봄 환경 및 서비스 제공(아동요리, 플라워가드닝, 체험활동, 어반스케치 등)
- 3) 철원군 사업(고마워, 시장놀이터)에 참여하여 수익금 전액을 철원장학회에 기탁.
- 4) 지역정화사업 실시(매주 토요일)
- 5) 연 2회(토) 가족초청 볼링대회를 개최해 부모와 아동 간, 부모와 부모 간 친목도모
- 6)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부모와 돌봄교실 간 상호 신뢰 형성

* 철원DMZ초등돌봄교실은 비영리법인 철원 월드휴먼브리지 산하 기관으로 21년도 강원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선정으로 시작되었음.

* 철원군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에서 6단체 중 패스한 곳이 철원DMZ초등돌봄교실 밖에 없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에 이 사업을 눈여겨보았던 철원군 의회에서 22년도에 제의해 철원군 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통합돌봄 사례 7

충북연회 단양남지방회 북단양교회 (담임 박남영 목사)

활용유형 : 독거노인 돌봄, 어린이방과후 수업, 외국인 상담, 노인 상담, 귀촌 상담

1. 동기

북단양교회는 산골 시골교회의 특성상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아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돌보며,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 활동

시골이지만 어린이들이 8명이 있고 지역에 방과후 어린이들에게 학교 수업을 도와주고 영어와 수학 그리고 신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변에 많아서 비정규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45% 이상의 고령화 사회이므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우울증 등 삶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귀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어려움

사역을 해오면서 어려운 점은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현재는 사택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역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활동의 활동비나 행사비의 부족과 교회에 차량이 없어서 활발한 외부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4. 비전

산골교회 주변 동네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령화로 인해 독거노인 즉 혼자계신 분들을 돌보는 것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등 인력 지원과 단기적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과 노인들의 상담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골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거나 도배를 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인들을 돌보는 좋은 사례입니다.



통합돌봄 사례 8

충북연회 제천동지방회 송계교회 (담임 이재권 목사)

활동유형 : 생계, 생활,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평생교육, 협동조합

1. 동기

통합돌봄은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에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의 학력 및 실력을 인정해 주는 주민이 문화 및 교육 시설이 전무한 마을에서 지역 아이들을 보살펴 주기를 간청하여서 마을교육 및 마을문화공동체 그리고 협동조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을 곳곳으로 찾아 들어가 이루어진 것처럼 송계교회의 마을사역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 어려움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부족함입니다. 시골 교회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돌봄 사역이 필요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그 예산을 교회에서 확보하고 싶었으나 이미 그 마을의 주민이었던 교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회복지단체 및 재단 그리고 선교 후원금 등으로 사역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 사역의 열매들이 보이니 교회도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지역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단 지원 사업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비전

첫째는 노인복지 및 돌봄이 되어야 합니다. 시골에는 이미 70% 정도가 어르신입니다. 자녀들과 지역의 젊은이들이 떠나간 마을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요양사들의 활동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간 건강한 어르신들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인데도 말입니다.

둘째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마을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착민들과 이주민들이 서로 어울려서 마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 큰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완충제 역할을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농 자매결연 캠프



일일 장터



경로대학



지역특산물 판매(곶감 만들기)



의료봉사



국민대학교 농촌봉사활동 결연



마을학생 집단상담



마을 부모교육



독거노인 집수리



주민 기타교실



마을 걷기대회



세명대학교 한방의료봉사 결연



미술교실



서예교실



뜨개질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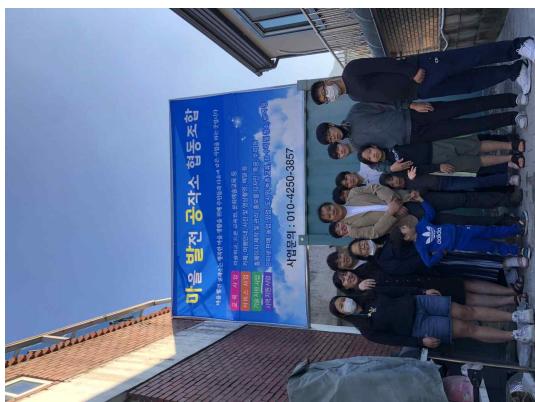
도서출판



농촌봉사활동



지역주민 김장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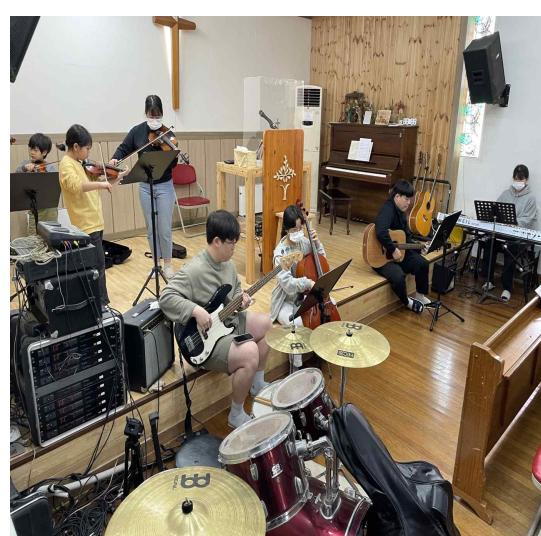
마을 청년 협동조합 설립



지역 사랑 실천(라면 나눔)



드론 교육



관현악 앙상블 교육

통합돌봄 사례 9

충북연회 괴산지방회 벤엘기등교회 (담임 안민혁 목사)

활동유형 : 마을 카페, 독서실, 공간대여, 공연 및 행사, 스터디 모임

1. 동기 및 활동

사역초기에 교회에 오게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제공하면 좋을까 했던 것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2025년 현재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증평이라는 작은 군단위 도시에는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교회가 그러한 곳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2025년 5월에 교회에서 재즈 공연을 주최하여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그저 예배만의 장소가 아니라 함께 지역사회와 협동하는 장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카페와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어려움

아직 작은 교회라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역과 병행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쉼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3. 비전

성탄절을 테마로 해서, 교회 주변으로 하여 풀리마켓과 동시에 연주회 및 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시에 증평이라는 작은 도시에 관광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할 동역자들을 모집하여 협동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 시골마을 교회에서 'th 발음' 강의… 다문화가정까지 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359?type=journalists>



제19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발 행 일 2025년 10월 1일

발 행 인 황병배 (선교국 총무)

편 집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편 집 인 이승현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발 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73번길 135-52(일영리)

전 화 02-399-4340